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Influencing Children's Self-Esteem in Low Income Families

어 주 경 **
 Eo, Joo Kyeong
 정 문 자 ***
 Chung, Moon Ja

ABSTRACT

Path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variables influencing the self-esteem of 222 4th, 5th, and 6th grade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The children and their mother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on self-esteem, child psychological traits, mothe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conomic hardship, and child rearing practices. Mothers' warmth-acceptance child rearing behavior was facilitating of children's self-esteem. However, mothers' economic stress had an indirect impact via their depression on decrease in the warmth-acceptance variable.

Permissive-nonintervention child rearing behavior decreased the level of children's self-esteem. However, mothers' depression and marital conflict(??) deriving from economic stress increased both rejection-restriction and permissive-nonintervention styles of child rearing. Mothers who experienced much stress due to economic hardship influenced(??)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family's poverty and thereby lowered their children's self-esteem.

I. 서론

자존감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특질들에 대한 자기 평가를 통해서 갖게 되는 하나의 신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상태 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성격 구인이다. 자존감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격 발달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왔으며, 아동의 행동이나 성취, 동기, 적응 등

발달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자인 Cooley(1902)와 Mead(1934)는 개인이 자신의 정체감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인간의 사회적 자아를 강조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Rosenberg(1979)

* 본 논문은 1998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부설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는 객체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서의 자아개념에 관심을 두고, 특히 개인은 자아를 좋게 생각하려는 기본적인 동기인 자존감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깊이 연구하였으며, 그의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핵심적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Erikson(1963)에 의하면 아동은 청소년 시기를 전후로 하여 자신의 정체감에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아동은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를 비교하여 자신에 대한 재인식을 시도하게 되는데, 아동의 자존감은 아동이 실제로 성취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타인의 '성의있고 일관된 인정'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다. 아동에게 의미있는 타인들 중 부모는 아동이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오래 동안, 가장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주변 인물이므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형성과 자존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달의 생태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은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부모의 양육 행동을 주로 연구하였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하나의 거시적인 환경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가족이 속한 사회 계층과 부모의 양육 행동, 그리고 아동의 자존감 발달간에는 대체로 일관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전문직에 종사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수입이 많은 중류층 이상의 부모는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자녀의 창의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하류층과 노동자층은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고 자녀의 행동에 통제를 많이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경, 1992; Shaffer, 1994). 한편 중류층 이상의 가족의 아동은 자존감이 높고, 하류층 가족의 아동은 자존감이 낮았으며(조성연, 1997; Demo & Savin-Williams, 1983),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

이고 수용적이며 참여적이고 지지적일 때 자녀의 자존감이 높고, 거부적이거나 방임적이며 제한적일 때 자녀의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애, 1995; Allen, Houser, Bell, & O'Conner, 1994; Buri, Murphy, Richtsmeier, & Komar, 1992).

그러나 자존감의 발달과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 계층간의 차이를 보고하는 연구들의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 데에는 두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는 연구들이 계층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들을 강조함으로써 계층내 성원들의 행동의 다양성을 밝히지 못하고, 그 계층에 속한 성원들은 모두 같은 특성을 보일 것이라는 계층내 동질성(within group homogeneity)의 가정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둘째는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의 범주를 결정할 때 지표로 사용되는 소득과 학력, 직업 면에 있어서 중류층과 하류층의 차이가 실제로 계층내 다양한 가족생활과 가족 성원들의 심리적 기능, 특히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계층의 영향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계층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이 많고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¹⁾ 가족의 아동에 있어서 다른 계층의 아동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발달의 차이를 단순히 계층이나 경제적인 조건으로 해석하기보다, 저소득층 아동이 그러한 결과를 보이게 된 복합적인 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생활이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적응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미국에서는 비행이나 일탈 행동이 많은 저소득층의 흑인 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연구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여 연구하고 있다(예; Brody, Stoneman, Flor, McCrary, Hastings, & Conyers, 1994; Connell, Spencer, & Aber, 1994; McLoyd, 1990). 이 연구들은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동의 적응적 행동과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빈곤이 가족의 심리적인 과정을 통해 아동의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경로를 밝혔다. 즉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부모가 겪게 되는 디스트레스와 갈등이 부모의 온정적이고 개입적인 양육 행동을 감소시키며 적대적인 양육 행동을 증대시킴으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우울을 경험하게 하고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며 학교에서의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실직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장기간 겪게 된 중류층 백인 청소년 가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 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 Whitbeck, Simons, Conger, Lorenz, Huck, & Elder, 1991).

그러나 아동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의 영향이 단지 부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McLoyd와 그의 동료들(McLoyd, Jayaratne, Ceballo, & Borquez, 1994)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인 지각이 이들의 사회정서적 기능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매개함을 밝혔다. 즉 아동들은 가족의 실제적인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사회적 지표로 가족의 빈곤을 지각하여 우울해지거나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의 영향을 좀 더 명확히 알아보고자 할 때, 부모의 심리적 경험과 아동의 심리적 경험이 모두 고려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연구들(김영모, 1990; 박순일, 1991; 조은·조옥라, 1987)의 초점은 주거환경과 주택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모 자녀 관계는 가족의 생활 실태 파악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즉 가족과 사회구조와의 거시적 연결고리에 관심이 편중되어 가족의 경제적 실태와 빈곤 상황에 관해 주로 논의함으로써 가족 성원들의 심리적 경험과 같은 미시적 현상에 대한 분석이 간과되었으며, 미시적 현상과 거시적 구조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분석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저소득층의 가족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있어서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수치심과 낙관적이지 못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보고된 바 있다(최은영, 1994).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와 체벌적인 양육 행동, 비밀관적인 훈육, 물질적인 보상 등(김경희·황혜정, 1998; 박미령, 1992; 박혜인, 1994)의 부정적인 측면이 열거되었다. 또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부간 불화, 결혼

1) 저소득층의 범위는 나라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준은 없으며, 빈곤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 생활실태론적 방법에 근거하고 가구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저소득층을 '도시 빈곤지역에서 가구 소득이 150만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 개념 정의한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빈곤층'과 '저소득층'은 개념상 같은 용어이나 빈곤층이라는 단어에 내재한 부정적인 어감을 피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용어를 사용하되, 선행 연구를 인용할 때에는 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므로,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생활의 많은 스트레스, 심리적 우울, 그리고 낮은 결혼 만족도 등(김인숙, 1994; 박혜인, 1994; 옥선화, 1992)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저소득층의 가족 관계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관계의 내적 역동성을 밝혀 주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밝혀진 우리 나라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저소득층의 가족 관계를 총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제기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심리적 경험,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경험하는 경제적인 스트레스, 우울감 정도, 부부 갈등과 양육 행동,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

제적 어려움이 저소득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매개하여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하여 <그림 1>과 같은 가설적인 경로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정하였다.

1. 저소득층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행동은 아동의 자존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2. 저소득층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의 자존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3.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소득층 가족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양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족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과 어머니 222쌍이었다. 연구대상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와 1개 지역 공부방, 그리고 강서구 가양동의 1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표집되었다. 3개 초등학교의 경우, 전반적인 자아 가치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는 4, 5, 6학년(이은혜, 1991) 각각 3반씩을 선정하여, 어머니용 질문지와 아동용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수거된 질문지 중 부모가 모두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월급 및 기타 수입을 합한 가족의 수입이 1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가족의 아동(평균 연령: 11세; 연령 범위: 9세 ~ 13세)과 어머니(평균 연령: 37세) 222쌍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양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을 선택함으로써 가족 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고,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들이 가장 많았는데(80%), 여기에는 보수를 받지 않고 남편의 일을 도와주는 어머니들도 포함되었다. 직장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파출부를 하거나 식당의 설거지를 하는 등 일일 고용되는 단순근로직이 가장 많았다(56%). 아버지의 경우 절반 이상이 기계 설비나 인쇄 등의 기술직(29%)과 환경미화원이나 건설업에 일일 고용된 단순근로직(24%)에 종사하고 있었다. 가구의 월수입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월수입을 합한 것으로서 평균 126만원이었으며, 연구대상 가족의 46%가 141

<표 1> 연구대상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

(N=222)

변인	구분	어머니	아버지
연 령	26 - 30세	2 (0.9)	0 (0.0)
	31 - 35세	57 (27.1)	11 (5.1)
	36 - 40세	127 (59.4)	93 (43.0)
	41 - 45세	22 (10.3)	88 (40.7)
	46 - 50세	5 (2.3)	19 (8.9)
	51세 이상	0 (0.0)	5 (2.3)
	무응답	11	6
학 령	무학	2 (0.9)	0 (0.0)
	국졸	29 (13.1)	15 (6.8)
	중졸	87 (39.2)	59 (26.5)
	고졸	100 (45.0)	127 (57.2)
	전문대졸 및 대졸	2 (0.9)	10 (4.5)
	대졸	2 (0.9)	11 (5.0)
직 업	무직/전업주부	177 (79.6)	3 (1.4)
	단순근로직	25 (11.3)	54 (24.3)
	기술직	7 (3.2)	60 (28.8)
	판매/서비스직	7 (3.2)	20 (9.0)
	자영업	0 (0.0)	26 (11.7)
	사무직	6 (2.7)	52 (23.4)
	학생/종교인	0 (0.0)	3 (1.4)
월수입	90만원 이하	22 (9.9)	
	91 ~100만원	30 (13.5)	
	101 ~110만원	9 (4.1)	
	111 ~120만원	28 (12.6)	
	121 ~130만원	20 (9.0)	
	131 ~140만원	12 (5.4)	
	141 ~150만원	101 (45.5)	
빚액수	없음	120 (54.1)	
	1,000만원 이하	54 (24.2)	
	1,001 ~2,000만원	29 (13.0)	
	2,001 ~3,000만원	13 (5.9)	
	3,001 ~4,000만원	0 (0.0)	
	4,001 ~5,000만원	3 (1.4)	
	5,001만원 이상	3 (1.4)	

() 속은 %

만원에서 150만원의 월수입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연구대상 가족의 절반 정도가 빚을 지고 있었는데, 빚의 액수는 평균 1,500만원 정도(범위: 20만원 ~ 9,700만원) 있었다. 대상 가족 구성원의 수는 평균 4.3명(범위: 3명 ~ 7명)이었다.

2. 연구 도구

1) 아동의 자존감

아동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196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4점 척도로서, 문항 3, 5, 8, 9, 10번은 역채점 되었으며,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총점의 범위는 10-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77이었다.

2)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아동이 자기 가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McLoyd와 동료들(1994)의 질문 문항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이 도구는 1997년 9월 저소득층 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18명의 초등학교 5학년 아동에게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때는 언제입니까?'라는 개방식 질문에 5가지씩 응답하게 하였으며, 이 중 가족과 구체적으로 연관되는 상황 12가지를 골라 문항으로 만들었다. 4점 척도로서, 아동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총점의 범위는 12-4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아동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87이었다.

3)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지표

로서 월수입의 고정성과 직업의 안정성에 따른 부모의 직업의 종류, 가족 구성원의 수입 정도, 가족의 빚 액수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정문자와 동료들(정문자·이미리·어주경, 1998)의 저소득층 연구에서 사용한 6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대상 가족의 어머니 중 80%가 직장이 없었으므로, 어머니는 취업 유무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가족의 수입은 어머니의 월수입과 아버지의 월수입, 그리고 월급 이외의 기타 수입을 합한 총수입 액수를 총 가족 수로 나누어, 가족 구성원의 가용 수입 액수를 구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가족의 빚 액수는 가족이 현재 갖고 있는 빚의 액수인데, 본 연구대상들의 경우 빚 액수에 있어서 편포가 심하였으므로(skewness=2.624) 원래의 빚 액수를 사승근(square root) 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4)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

어머니가 겪고 있는 가족 경제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Lempers와 동료들(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그리고 김영희(1996)가 사용한 질문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9문항의 5점 척도로서, 어머니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총점의 범위는 9-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81이었다.

5) 어머니의 우울 수준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인숙(1994)이 번역하여 사용한 Zung(1965)의 자기평가식 우울 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의 4점 척도로서, 문항 2, 5, 6, 11, 12, 14, 16, 17, 18, 20번은 역채점

되었다. 어머니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총점의 범위는 20-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84이었다.

6) 부부 갈등

부부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Porter와 O'Leary(1980)의 O'Leary-Porter Scale을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5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으로 판단된 10번 문항을 제외한 총 9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어머니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총점의 범위는 9-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많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6이었다.

7) 어머니 양육 행동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박영애(1995)의 어머니용 양육 행동 척도에서 각 행동별로 요인 부하량이 높은 38개 문항(온정·수용 행동-14문항, 거부·제재 행동-12문항, 허용·방임 행동-12문항)을 재요인분석하여, 요인 부하량이 낮고(.40 미만), 공통분이 낮은(.20 미만) 1개 문항을 제외한 총 37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요인들 간의 상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각회전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서, 어머니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총점의 범위는 온정·수용의 행동의 경우 15-60점, 거부·제재 행동의 경우 10-40점, 허용·방임 행동의 경우 12-4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행동별로 어머니가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행동별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온정·수용 행동이 .87, 거부·제재 행동이 .79, 허용·방임 행동이 .75이었으며, 37문항 전체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측정 도구들의 질문 문항들이 저소득층 아동과 어머니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1997년 10월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 1곳의 공부방에 다니고 있는 4, 5, 6학년의 저소득층 아동 80명과 저소득층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들이 응답한 질문지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전화 면접을 통해 분명히 기록되었다.

수거한 질문지의 응답으로 각 측정 도구별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제작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의 경우, 변별력이 없다고 나타난 2문항을 제거하여 11문항에서 9문항으로 축소하고, 4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의 척도에서는 3문항이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15문항에서 12문항으로 축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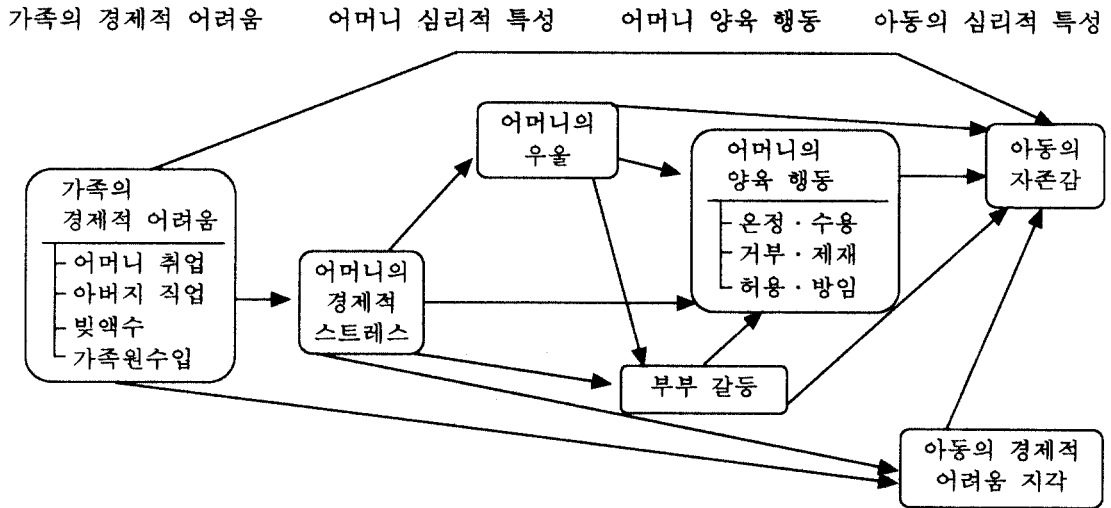
2) 본조사

본조사는 1997년 12월 13일에서 12월 2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에서 각 3반씩을 선정하여, 교사들을 통해 아동과 어머니용 질문지 각각 805부를 배부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787부(회수율: 98%), 어머니용은 746부(회수율: 91%)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본 연구대상인 저소득층의 조건에 부합하는 가족의 아동과 어머니 213쌍이 선정되었다. 여기에 강서구 가양동의 1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6가족과 봉천동 지역 공부방에서 3가족, 총 9쌍의 질문지 면접 결과가 첨가되었다.

4. 자료 분석

연구 대상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상황, 측정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의 기술적인 분석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을 산출하고, <그림

1>의 가설적 모형을 경로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모형에서 인과성의 추론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적합도 지수 Q(Specht, 1975)²⁾를 산출하였다. 또한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구분하여 인과효과를 산출하였다.



<그림 1>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적 모형

Ⅲ. 연구 결과

1. 저소득층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양육 행동,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아동의 자존감의 일반적 경향

측정변인들의 점수가 아동의 성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성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 아동에 대한 측정변인을 분석하였다.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문항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 $Q = (1 - R_{m2}) / (1 - M)$

$R_{m2} = 1 - (1 - R_{12})(1 - R_{22}) \dots (1 - R_{p2})$ 경로가 제거되기 전의 모형

$M = 1 - (1 - R_{12})(1 - R_{22}) \dots (1 - R_{p2})$ 경로가 제거된 후의 모형

Q 값이 1에 근접한 경우, 경로가 제거되기 전과 후의 모형이 매우 유사함을 의미한다.

<표 2> 측정 변인의 문항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계수 (N=221)

측정변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어머니					아동		
	어머니 취업	아버지 직업	가족원 수입	빛 액 수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 수준	부부 갈등	은경·수용 행동	거부·체재 행동	허용·방임 행동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지각	자존감
어머니 취업	1.00											
아버지 직업	-.12	1.00										
가족원 수입	-.14	.27***	1.00									
빛 액수	.05	.18*	.10	1.00								
경제적 스트레스	.19**	-.19**	-.19**	.16	1.00							
우울 수준	.10	-.12	-.12	.08	.30***	1.00						
부부 갈등	.07	-.17**	-.06	.02	.31***	.51***	1.00					
은경·수용 행동	-.01	-.01	.00	.08	.13	-.20**	-.03	1.00				
거부·체재 행동	-.03	-.04	.09	-.01	.23***	.29***	.38***	-.04	1.00			
허용·방임 행동	.08	.01	-.07	-.13	.12	.16	.29***	.08	.38***	1.00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지각	.05	-.15	-.20**	.08	.24***	.30***	.33***	-.11	.15	.10	1.00	
자존감	-.02	.07	.10	.04	-.09	-.12	-.18**	.13	-.10	-.19**	-.33***	1.00
평균				3.28	2.23	2.26	3.11	2.35	2.01	1.76	2.80	
표준편차				.75	.46	.71	.46	.56	.46	.56	.48	
점수범위				1.0-5.0	1.0-4.0	1.0-5.0	1.0-4.0	1.0-4.0	1.0-4.0	1.0-4.0	1.0-4.0	1.0-4.0

* p<.05 ** p<.01 *** p<.001

<표 2>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은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편이며, 자기 가족이 경제적으로 거의 어렵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저소득층 어머니는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우울함을 가꿈에서 자주 사이로 경험하고 있으나, 부부간의 갈등은 거의 없거나 가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어머니들은 자녀를 대할 때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며, 상대적으로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행동이나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행동은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아동과 어머니의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 중에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 그리고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만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한 하위 요인들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저소득층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들은 서로 밀접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은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행동과는 부적 상관, 거부·제재적인 양육 행동과 허용·방임적인 양육 행동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보이는 양육 행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는 가족의 수입과 부적 상관이 있으나,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는 모두 정적 상관을 보여, 아동이 지각하는 자기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의 수입 및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많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부부 갈등과 허용·방임적인 양육 행동, 그리고 자기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각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하위 변인들과는 의미있는 관계가 없었다.

2.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측정 변인들의 영향을 <그림 1>의 가설적 모형으로 경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력이 미약한 경로($p \geq .10$)를 제외한 경로와 경로계수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그림 2>와 같은 모형으로 수정하는 경우, 수정된 경로모형은 적합도 지수 $Q=955$ 로 산출되어, 수정된 경로모형이 처음에 설정한 가설적 모형과 상당히 근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행동의 영향

<그림 2>에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의 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취업 상태와 가족의 빚 액수는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으나, 아버지의 직업과 가족원의 수입은 부적인 직접효과를 보였다.

어머니의 우울 수준에 대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의 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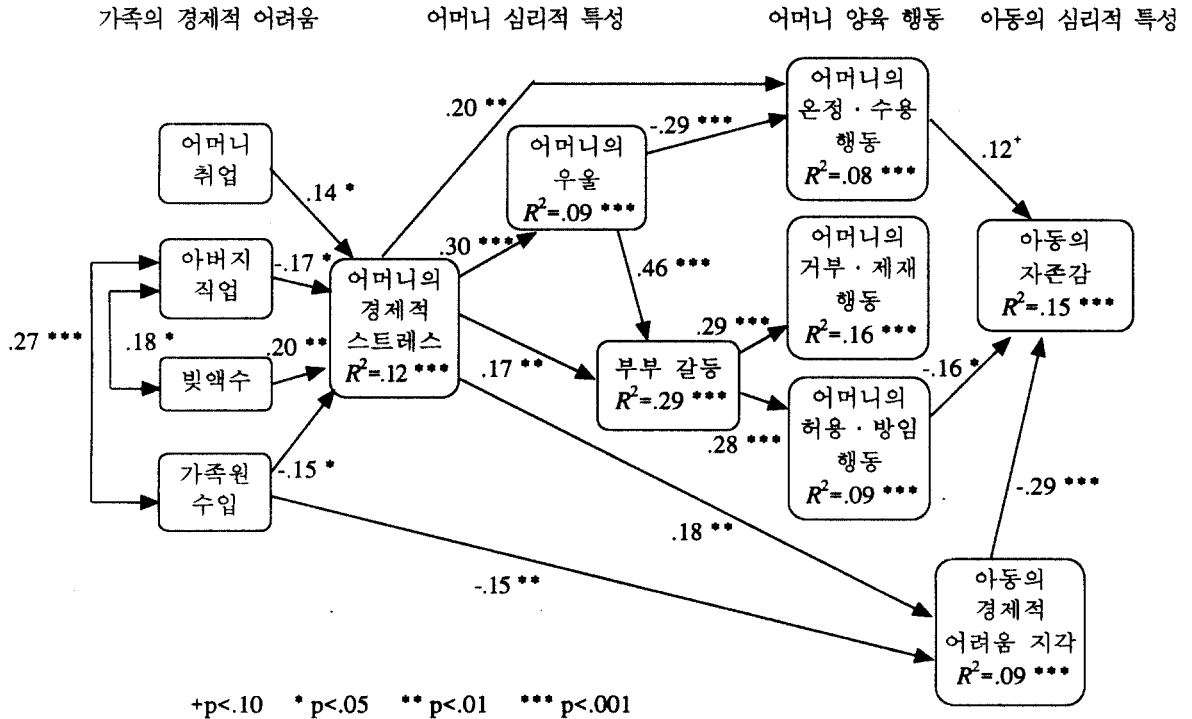
부부 갈등에 대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의 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부부 갈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다.

양육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양육 행동에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우울 수준은 부적인 직접효과를 보였다. 어머니의 거부·제재적인 양육

<표 3>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독립변인 \ 종속변인	어머니 경제적 스트레스		어머니 우울		부부 갈등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		어머니의 거부/제재 행동		어머니의 허용/방임 행동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아동의 자존감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어머니 취업	1.08	.14*														
아버지 직업	-.72	-.17*														
빛 액수	.06	.20**														
가족원 수입	-.12	-.15*														
어머니 경제적 스트레스			.42	.30***	.16	.17**	.19	.20**	.08	.10	.03	.04	.18	.18**	-.02	-.02
어머니 우울					.32	.46***	-.21	-.30***	.07	.11	.01	.01			.03	.05
부부 갈등							.05	.05	.25	.29***	.24	.28***			-.04	-.06
온정/수용 행동															.09	.12*
거부/제재 행동															.02	.02
허용/방임 행동															-.14	-.16*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20	-.29***
R ²			.12***	.09***	.29***	.08***	.16***	.09***	.15***							

* p<.05 ** p<.01 *** p<.001



<그림 2>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경로계수

행동과 허용·방임적인 양육 행동에 대해서는 부부 갈등만이 각각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행동의 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허용·방임적인 양육 행동은 아동의 자존감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도가 경계선 수준이기는 하나 ($p<.07$)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양육 행동이 아동의 자존감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가족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심리적인 우울을 겪게 하고 부부간 잦은 갈등 상황에 놓이게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심리적 환경으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에게 거부·제재적이며 허용·방임적인 양육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반면에 온정·

수용적인 행동을 적게 보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 허용·방임적인 행동은 아동의 자존감을 낮추는 반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행동은 아동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의 실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어머니의 부정적인 심리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매개하여 아동의 자존감을 낮추게 함을 알 수 있다.

2)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아동의 지각의 영향

<그림 2>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자기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의 효과를 살펴보면, 가족원의 수입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보였으나, 어머니의 경

<표 4>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을 예언하는 관련 변인들의 인과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아동의 자존감				
	공분산	직접효과	간접효과	비인과효과	전체효과
어머니 취업	-.02	-	-.01	-.01	-.01
아버지 직업	.07	-	.01	.06	.01
빛 액수	.04	-	-.01	.05	-.01
가족원 수입	.10	-	.05	.05	.05
경제적 스트레스	-.09	-	-.06	-.03	-.06
우울 수준	-.12	-	-.06	-.06	-.06
부부 갈등	-.18	-	-.05	-.13	-.05
온정·수용 행동	.14	.12	-	.01	.12
거부·제재 행동	-.10	-	-	-.10	-
허용·방임 행동	-.19	-.16	-	-.02	-.16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아동의 지각	-.33	-.29	-	-.04	-.29

제적 스트레스는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다. 그런데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아동의 자존감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의 수입이 적거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인식하게 하여, 이 또한 아동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가족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아동이 이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을 때 아동의 자존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3)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인과효과

모형에 포함된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의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해 볼 때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행동과 허용·거부적 행동, 그리고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그 중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의 영향력이 -.29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하위변인들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은 미약하기는 하나 아동의 자존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직업과 가족의 빛 액수, 그리고 부부 갈등의 경우 간접적인 효과보다 비인과적인 효과의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간접적인 효과 외에 실제 상관의 절반 이상이 다른 변인에 의해 허구적으로 나타나는 비인과적인 효과도 상당히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아동의 심리적 특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변인들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어머니는 우울하게 되고 부부간 갈등을 일으켜, 자녀에게 온정·수용적인 행동을 적게 하고, 거부·제재적인 행동과 허용·방임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데,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행동은 아동의 자존감을 높이나, 허용·방임적인 행동은 아동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된 하위 변인들 모두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는데, 그 중 빚 액수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대상 가족 아버지들의 절반 이상이 단순 기술직이나 일일고용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일정치 않거나 한정된 수입에서 돈을 버는 사람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가족 성원의 수가 많고 빚의 액수가 많으면 가족의 식비나 학비, 빚에 대한 이자 상환액 등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업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취업하게 된 가족의 경제적 상황, 즉 아버지의 월수입이 적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 취업해야 하는 상황이 어머니에게 경제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취업한 어머니의 72%가 식당 설거지나 파출부, 봉제나 미싱과 같은 일일 노동직과 단순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수입이 가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발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과 부부 갈등, 양육 행동을 매개하여 아동의 자존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를 어머니의 3가지 양육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온정·수용적인 양육 행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로가 나타났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가 많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온정·수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경제적 스트레스가 많아 우울하게 된 어머니는 자녀에게 온정·수용적인 행동을 적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양육 행동은 아동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많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수용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부모가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체벌적이라는 조사보고와 부모의 실제적인 경제적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자녀에게 거부적이거나 적대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Elder(1974)와 그의 동료들(Elder & Caspi, 1988)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온정·수용적인 행동간의 단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r=.13$, n.s.)으로 미루어 볼 때, 통계상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

러한 결과를 확인하는 반복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서 본 연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어머니의 우울함이 자녀에 대한 온정·수용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경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정적 영향($\beta = .20, p < .01$)보다는 경제적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어머니의 우울함이 주는 간접적인 부적 영향($\beta = -.29, p < .001$)이 더 크기 때문에,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많이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모의 우울함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부부 관계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 줌을 보고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들(김영희, 1996; Conger et al., 1992; McLoyd, 1990)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즉 이전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온정적인 양육 행동간의 부적 관계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우울함이나 디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되어, 이들 변인이 잠재변인으로 영향을 미쳐 오염된 관계를 보여주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은 자녀에게 지원적인 행동이라고 여겨져 아동의 자존감을 높이는 하나의 자극 행동이 되는 것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지적인 양육 행동을 보일 때 아동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였다.

두 번째,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가 우울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원만하지 못한 부부 관계가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에게 더 거부·제재적인 행동과($\beta = .29$) 허용·방임적인 행동을($\beta = .28$) 보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영향 받은 어머니의 거부·제재적인 행동은 허용·방임적인 행동이

아동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과는 달리 아동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Brody와 동료들(1994) 그리고 Fauber와 동료들(199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즉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결혼생활의 만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옥선화와 정민자(1984)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사회심리적 대처자원이 적은 저소득층 어머니는, 경제적인 원인으로 부부 갈등이 생길 때 남편에 대한 적대감의 투사로서 자녀에게 신경질적이고 짜증섞인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Margolin(1981)의 지적처럼 부부간 갈등은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골몰하게 하여 자녀의 행동에 충분한 관심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녀에게서 위축적이고 철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철회적이고 방임적인 행동들은 자녀의 자존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자녀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인 부모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허용·방임적인 행동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함을 경험하고 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어머니의 심리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층 아동은 어머니가 외현적으로 보이는 허용·방임적인 행동 뿐 아니라, 이를 유발하는 심리적 환경까지 인지하여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거부·제재적인 양육 행동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유의한 직접적인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거부적이고 적대적이며, 별주는 행동이 아동의 자존감과 부적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박수경, 1992;

박영애, 1995; Conger et al., 1994)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양육 행동으로서 처벌이 많지 않더라도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곤란이 클 때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어머니의 처벌적인 행동이 아동의 자존감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고한 McLoyd와 그의 동료들(1994)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 행동이 아동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 되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즉 재개발 지역이라는 주거환경으로 인해 방과후 놀이환경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상업지역과 구분이 되지 않고 주거지역 내의 교통도 복잡함으로 인한 우범요인과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나 주변 성인들의 양육 행동이 아동들에게 많은 제재를 가하고 통제를 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행동이 자녀에게 자녀 자신을 부모가 거부하는 태도라기보다는 부모가 일상에서 보이는 입버릇처럼 여겨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의 자존감에 특별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어머니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이로 인한 어머니의 우울함과 부부간의 갈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 발달의 생태학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아동은 부모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라는 미시체계로서 양육 행동의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어머니의 심리적 경험이라는 외체계와 거시체계가 아동에게 하나의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저소득층 어머니 스스로가 자녀에게 별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허용·방임적인 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에 더 강한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류층 이상의 가족에서와는 달리 저소득층 가족에서는 부모의 온정적이고 지원적인 행동이 아동의 긍정적인 자존감 형성에 충분한 자극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부모의 무관심한 행동을 아동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 부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결과로서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결국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인 경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즉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심리적 기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아동 자신의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지표 중 가족원의 수입만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지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beta = -.15$)을 주었다. 그러나 나머지 변인들은 가족원의 수입과 함께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어머니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아동이 자신의 가정 경제가 어렵다고 지각하도록 하는($\beta = .18$)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에 영향받아 아동이 자기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의 자존감에 어머니가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닌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어머니의 경험보다는 이를 해석하고 느끼는 아동의 지각과 경험이 아동의 자존감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지각이 어머니의 스트레스와는

상관없이 발생하여 아동의 자존감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McLoyd와 그의 동료들(1994)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연구대상의 연령차이와 문화적 차이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그들의 연구대상은 미국의 7, 8학년 아동들(12~17세)로서 아르바이트를 통한 경제적 독립이 어느 정도 가능한 시기였으므로, 아동의 노력만으로도 자기 용돈에 필요한 수입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으로서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한 연령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의 경제적인 아르바이트가 허용되거나 용이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인 지원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아동은 아동 자신이 부모에게서 타서 쓸 수 있는 돈의 액수나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의 자존감에 가장 강한 부적 영향($\beta = -.29$)을 주고 있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돈문제로 서로 다투는 등의 상황을 아동이 직접 목격하는 것 뿐 아니라, 아동 자신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학원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 또래 사이에서 유행하고 가치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는 등의 또래 문화(Brown, 1990) 속에서 상대적인 사회적 비교로 인해 아동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물질만능주의적 관념이 팽배한 성인식의 사고방식이 아동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까지 반영되어 상대적 빈곤감을 형성하여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아동의 지각에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인 경험이 아동의 지각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있어서 어머니의 심리적 기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결과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영향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에서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이 더 많고 그 영향력도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이 다른 계층의 아동에 비해 낮아질 확률이 더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을 활성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킨다면, 저소득층 아동이 보다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기가 용이하리라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층 어머니의 긍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위한 가족 내·외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은 어머니 자신 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연구의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밝히자면, 첫째, 가족의 수입이나 빚의 액수,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대한 정보가 연구대상자의 보고에 의한 것이므로,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실제 사실과 행동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가족의 수입을 측정할 때 월급과 같은 고정 수입과 함께 가족의 저축으로 인한 이자 발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이 보다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월급이 적더라도 가용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셋째,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 아동의 중간체개인 학교 환경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부모의 행동 뿐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교사와 또래의 태도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도 함께 고려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우리 나라에서 저소득층 가족의 특성들과 이들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합하여, 실제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머니의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과 이에 영향을 받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곤란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자녀의 자아개념에 부모의 양육 행동 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에 확증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스트

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어머니는 우울하게 되어 자녀에게 온정·수용적인 행동을 적게 한다. 그런데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행동은 아동의 자존감을 높인다.

둘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어머니는 우울하게 되고 부부간 갈등을 일으켜 자녀에게 거부·제재적인 행동과 허용·방임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이 중 어머니의 허용·방임적인 행동은 자녀의 자존감을 낮춘다.

셋째, 가족의 적은 수입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어머니는 자녀로 하여금 자기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지각하게 하여 아동의 자존감을 낮춘다.

넷째,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이 중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아동의 자존감에 더 강한 부적 영향을 준다.

참고문헌

- 김경희·황혜정(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2-26.
- 김영모(1990). 한국 빈곤 연구(연구총서 ⑦).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인숙(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령(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모, 자녀 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도시저소득층의 가족 문제(pp.55-97). 서울: 하우.
- 박수경(1992).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및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순일(1991).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수요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 행동, 형제 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인(1994). 대구지역 저소득층 기혼 여성의 일과 가족 생활 실태 파악 및 가족복지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179-191.

- 육선화(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부문제. 한국 가족학연구회 (편).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 문제 (pp.29-54). 서울: 하우.
- 육선화 · 정민자(1984).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 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48-61.
- 이은혜(1991). 아동의 인지 능력성, 동기 지향성, 사회적 지원과 학업 성취간의 관계. 유아교육 연구, 11, 71-89.
- 정문자 · 이미리 · 어주경(1998).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체특성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26.
- 조성연(1997).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자존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45-58.
- 조은 · 조옥라(1987). 도시 빈민의 삶과 공간 - 사당동 재개발 지역 현장 연구(인구 및 발전 연구 총서 2).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은영(1994).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의 빈곤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 O'Conner, T. G(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 179-194.
- Brody, G. H., Stoneman, Z., Flor, D., McCrary, C., Hastings, L., & Conyers, O(1994). Financial resources, parent psychological functioning, parent co-caregiving, and early adolescent competence in rural two-parent African-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590-605.
- Brown, B. B(1990). Peer groups and peer cultures. In S. S. Feldman &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pp.171-19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ri, J. R., Murphy, P., Richtsmeier, L. M., & Komar, K. K(1992). Stability of parental nurturance as a salient predictor of self-esteem. *Psychological Reports*, 71, 535-543.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nger, R. D., Ge, X., Elder, G. H. Jr., Lorenz, F. O., & Simons, R. L(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Connell, J. P., Spencer, M. B., & Aber, J. L(1994). Educational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American youth: Context, self, action, and outcomes in school. *Child Development*, 65, 493-506.
- Cooley, C. H(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Demo, D. H., & Savin-Williams, R. C(1983). Early adolescent self-esteem as a function of social class: Rosenberg and Pearlin revisit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 763-774.
- Elder, G. H. Jr(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der, G. H. Jr., & Caspi, A(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25-45.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Fauber, Forehand, Thomas, & Wierson.(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 families: The role of

-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Margolin, G.(1981).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and child problems. In J. P. Vincent (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Vol. 2, pp131-182). Greenwich, CT: JAI.
- McLoyd, V. C.(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McLoyd, V. C., Jayaratne, T. E., Ceballo, R., & Borquez, J.(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 562-589.
- Mead, G. H.(1934).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rter, B., & O'Leary, K. D.(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8, 287-295.
- Proctor, T. B., & Choi, H. S.(1994). Effects of transition from elementary school to junior high school on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and perceived compete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31, 319-327.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haffer, D. R.(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3rd Ed.).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Specht, D. A.(1975). On the evaluation of causal model. *Social Science Research*, 4, 113-133.
- Whitbeck, L. B., Simons, R. L., Conger, R. D., Lorenz, F. O., Huck, S., & Elder, G. H. Jr.(1991). Family economic hardship, parental support, and adolescent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4), 353-363.
- Zung, W. W. K.(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